

[사회]

서울대 여학생 합격 40% 첫 돌파

논술 사교육 영향 미미...郡지역 출신 평균점수 높아

과학고 출신 늘고 52개 고교 10명 이상 합격

2007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여학생 합격자가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웃돌았다.

서울대는 1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포함한 올해 정시 모집 합격자 1천948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수시와 정시 모집 합격자 가운데 여학생은 40.58%인 1천347명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여학생 비율은 2000년 36.3%를 기록한 뒤 2002년 38.4%, 2004년 37.1%, 2006년 36.6% 등으로 30%대 후반에서 증감을 거듭했으며 40%를 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합격률도 올라 작년의 경우 6천59명 지원에 1천249명이 합격해 20.61%의 합격률을 보였으나 올해 6천404명의 지원자 가운데 1347명이 합격해 21.03% 합격률을 보였다. 또 지난해에 이어 정시모집 합격자의 논술고사 평균 점수에서 군 지역 출신 학생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아 사교육이 논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5점 만점인 정시모집 인문계열 합격자의 논술고사 평균 점수는 남녀별,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작년에 이어 군(郡) 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비교적 높았다.

학생 출신 지역별 논술고사 평균점수는 군 23.58점, 서울 23.42점, 광역시 23.41점, 시 23.36점으로 작년(군 23.52점, 시 23.50점, 서울 23.49점, 광역시 23.47)에 이어 올해도 군 지역 출신 학생의 논술 점수가 서울이나 광역시보다 높았다.

군과 서울 사이의 평균점수 격차는 작년 0.02점에서 0.16점으로 벌어졌다. 정시모집 합격자별 출신 지역도 작년 서울 38.3%, 광역시 23.3%, 시 34.7%, 군 3.7%에서 올해 서울 33.7%, 광역시 32.4%, 시 29.2%, 군 4.7%로 서울이 줄어든 반면 군이 늘었다.

과학고 출신 합격자는 작년 164명(4.8%)에서 올해 268명(8.1%)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외국어고 출신은 작년 226명(6.6%)에서 올해 211명(6.4%)으로 0.2%포인트 감소했다.

일반고 출신 합격자는 79.9%에서

77.0%로 줄었고 실업고 출신 합격자는 2명에서 5명으로, 국제고 출신 합격자도 5명에서 10명으로 각각 늘었다.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52개고교였으며 이 가운데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11곳이었으며 서울고교와 서울과학고, 대원외고는 합격자를 50명 이상, 한성과학고는 40명 이상 냈다.

합격자 배출 고교 수는 2002년 618개, 2004년 775개, 2006년 846개, 올해 883곳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수생 이상 비율은 작년 35.9%에서 올해 34.4%로 조금 하락했다.

과학고 출신 합격자가 급증한 것은 공대와 자연대의 선발 인원이 많아지면서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과학고 출신 학생 244명이 합격했기 때문이라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오늘 광주·전남 5cm 눈

'오락가락 예보' 시민 향의 잇따라

2일 오전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에 1~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도 광주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寒波)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출근길 미끄럼 사고를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에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며 "미끄럼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전남은 순천·곡성 영하 7도, 해남·장흥 영하 6도, 목포·여수 영하 3도, 완도 영하 2도 등으로 영하권에 머물렀다. 낮에도 광주·구례 4도, 순천, 진도, 여수 5도 등 3~6도도 다소 추웠다.

서해남부 모든 바다와 남해서부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평균풍속 초속 14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될 때), 대흑산도·홍도에 강풍주의보(평균풍속 14m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 이상)가 발령됐다. /이승배기자 lsb54@

광주지방기상청은 "추위는 2일까지 계속되다가 찬 대륙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3일 광주 낮 기온이 최고 8도까지 올라가는 등 서서히 풀리겠다"고 예보했다.

한편, 기상 예보가 빗나간 것과 관련 기상청·언론사 등엔 향의 전화가 빗발쳤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부터 2일 새벽 0시까지 광주·전남에 5~20cm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나, 1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진도 6.3cm, 영광·무안·함평 5cm, 해남 4.1cm, 장흥 0.4cm 등 적설량은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광주는 한두 차례 눈발이 날리는 데 그쳤다.

기상청은 이에 대해 "상층 차가운 공기가 생각보다 약했기 때문"이라며 "바람의 방향도 바뀌어 눈 구름이 내륙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해안가를 따라 남쪽으로 빠져나갔고, 날씨가 따뜻해 눈이 쌓이지 않고 녹았다"고 설명했다. /이승배기자 lsb54@

야속한 찬바람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 한 때 눈이 오겠다.

2월 2일
(음 12월 15일)
◇전국날씨

| | | |
|-----|------------|-------|
| 광주 | 구름조금, 한때 눈 | -4~4℃ |
| 목포 | 구름조금, 한때 눈 | -3~3℃ |
| 여수 | 구름조금 | -3~5℃ |
| 순천 | 구름조금 | -2~4℃ |
| 해남 | 구름조금 | -6~4℃ |
| 장흥 | 구름조금 | -6~4℃ |
| 곡성 | 구름조금 | -6~4℃ |
| 영광 | 구름조금 | -7~5℃ |
| 함평 | 구름조금, 한때 눈 | -4~3℃ |
| 무안 | 구름조금, 한때 눈 | -4~5℃ |
| 진도 | 구름조금, 한때 눈 | -5~3℃ |
| 완도 | 구름조금, 한때 눈 | -8~2℃ |
| 보성 | 구름조금, 한때 눈 | -4~3℃ |
| 고흥 | 구름조금, 한때 눈 | -4~5℃ |
| 영암 | 구름조금, 한때 눈 | -5~3℃ |
| 진남평 | 구름조금, 한때 눈 | -8~2℃ |
| 영광 | 구름조금, 한때 눈 | -4~3℃ |
| 곡성 | 구름조금, 한때 눈 | -4~5℃ |
| 영광 | 구름조금, 한때 눈 | -5~3℃ |
| 함평 | 구름조금, 한때 눈 | -8~2℃ |

서해남부
안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안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2:01 썰물 < 07:28
여수 밀물 < 09:41 썰물 < 03:06

▲해돋이 07:31 ▲해질 18:01 ▲달출 07:38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3(토) | 4(일) | 5(월) | 6(화) | 7(수) | 8(목) |
|-------|------|------|------|------|------|------|
| 날씨 | | | | | | |
| 최저/최고 | -3/8 | -2/9 | 1/10 | 2/9 | 3/8 | 2/7 |



이주여성들 "눈썰매 신나요" '광주 이주여성지원상담센터'이시장 이상옥)은 1일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이주여성 20여 명을 광주 패밀리랜드 눈썰매장에 초청했다. 사진 처음 썰매를 탄 이주여성들은 '하얗고 차가운 눈'이 무척 신기한 듯 환호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나명주기자 mjna@

광천터미널에 '복합문화관' 만든다

2009년까지 음악홀·영화관 등 건립 추진

광주시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 음악홀·소극장·갤러리·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관 건립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1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터미널이 최근 버스종합터미널에 음악홀·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관을 증축하겠다고 교통영사향담의를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금호터미널에 따르면 금호 측은 현재 신세계 백화점과 터미널

대합실 연결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1층 건물에 4개 층을 증축해 연면적 1만9천400㎡·지상 5층 규모의 문화관을 2009년 상반기까지 건립한다.

금호는 문화관 2~3층에 음악홀(500석)·소극장(500석)·갤러리(330㎡)를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무료 개방한다. 또 3~5층에는 호남 최초의 아이맥스관(500석)과 복합 영화 상영관(10개 관·2천100석) 등을 입주

시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터미널'로 육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호는 이를 위해 ▲주차장 400여면 신설 ▲교차로 신호 최적화 ▲진출입통행 체계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영향평가계획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금호 측은 이 같은 교통개선책에 따라 현재보다 20~30%가량 차량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광천터미널 일대는 광주 시내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중 한 곳인데다, 지역극장협회에서 영화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주정기자 jknews@

CMB 광주·전남방송 상무지구에 새 사옥

8층 규모 올 연말 완공

CMB 광주·전남방송이 광주시 상무지구에 새 사옥을 마련한다. CMB 광주·전남방송은 2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11-2 광주시청 맞은편 부지에서 신사옥 착공식을 갖는다. 올 연말 완공될 CMB 신사옥은 연면적 7천174㎡에 지하 2층·지

상 8층 규모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디지털방송 시대에 맞춰 최첨단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다. CMB 광주·전남방송은 그동안 광주시 동구 수기동과 서구 화정동 등 2개 사옥을 사용해 왔다. 한편 CMB는 전국 12개 케이블 방송사를 소유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로써, 이 지역에서는 광주 38만 가구와 나주·곡성·화순·담양·장성·구례·보성·영광·함평 등 9개 시·군 12만 가구에 케이블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knews@

정표로 준 약속어음 지급 의무 없다

청춘 남녀가 '사랑의 정표'나 헤어질 것을 우려해 작성한 약속어음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0년 12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안모(27)씨와 이모(27·여)씨는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었다던 이씨는 2002년 남자친구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우려해 각서를 받아야겠다며 안씨로부터 5천만원짜리 어음을 받아 냈다. 안씨는 이씨에게 5천만원을 빌린 적이 없지만 그녀의 요구에 응했다. 그러나 둘은 곧 헤어졌고 이씨는 안씨에게 5천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6부(이상철 부장판사)는 1일 이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안씨는 이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에서 어음을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남녀 사이의 정표로서 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원고와 피고간 어음 발행행위는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이 행해졌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이상 무효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매월 초 개강

리틀자이나 中国語 学院

233-9582

IBT토플 중123 영어영재반 대모집

확원선택! 정확해야 후회없습니다.

동아외국어학원

메가퍼스트학원